

“말리던 장판 또 젖어...” 반복된 수해에 주민들 ‘망연자실’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 침수 재발
자원봉사단 집안 휴탕물 등 퍼내
음식물 쓰레기 등 뒤섞여 악취도
“빗소리 들리면 심장 요동” 호소

“말리던 장판이 또 젖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빗소리만 들려도 치가 떨릴 지경이에요.”

4일 오전 8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고 인근. 전날 시간당 80mm에 달하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가 곳곳에서는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복구 작업에 한창이었다.

이날 중흥동 건우봉사단, 광주북구동신지역 자활센터, 북구청 관계자 등 15명은 ‘행복동지 사랑의 집수리’ 봉사의 일환으로 보름 전께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신안고 인근 주택을 찾아 도배·장판 교체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에 나섰다.

내리는 비에 우비와 목장갑을 착용한 봉사자들은 진흙 묻은 장판과 생활 집기 등을 밖으로 옮기고, 집안의 휴탕물을 쓰레받기와 양동이로 퍼내며 분주히 움직였다.

수해로 음식물 쓰레기 등이 뒤섞여 현장은 악취가 퍼졌고, 습한 날씨 속에 봉사자들의 이마엔 땀이 흘러내렸다.



보름여만에 또다시 괴물폭우로 인해 추가 침수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주택가에서 4일 오전 중흥동 건우(建友)봉사단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인근 다른 주택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외벽엔 진흙과 잡초가 엉겨 붙어 있었고 마당과 바닥은 여전히 휴탕물에 잠겨 있었다.

집 한쪽에는 젖은 페박스와 슬리퍼, 신발장이 흐트러진 채 놓여 있고, 창고 안에는 흠뻑 젖은 옷가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세탁기와 선풍기

등 가전제품 곳곳에는 흙이 묻어져 나왔다.

집주인 임용호(60)씨는 “지난달에 집이 침수돼 겨우 정리하고 장판과 벽지를 말리던 중이었는데 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그때는 물이 가슴까지 차올라 창문틀을 붙잡고 있다가 겨우 피신했었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이어 “10년 넘게 이곳에 살면서 비만 오면 침수 걱정을 한다”며 “요즘은 날씨 앱부터 확인하고 빗소리만 들어도 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 지역은 지난달 17일부터 사흘간 광주·전남에 최대 6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

가,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던 곳으로 전날 오후부터 내린 괴물폭우에 또다시 수해를 입었다.

특히 인근 천변 주변에 주택가로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수판이 설치돼 있는데 벽 하단의 배수 구멍으로 물이 제때 빠지지 못하면서 침수를 더 키웠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또 지난달 폭우에 차수판 일부가 무너졌는데 그 덕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피해가 오히려 줄었다고 부연했다.

주민들은 전날 폭우로 물이 다시 차오를까 우려해 빗물받이를 정비하고 마을 주변을 샅샅이 하며 일부는 오후 10시께 용봉초로 긴급 대피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거센 빗소리에 불안에 떨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은 일부는 새벽에 비가 그친 뒤 집으로 돌아와 침수 피해 현장을 마주했다. 때문에 주민들은 반복되는 수해로 두려움을 호소했다.

50년 넘게 인근에 거주한 김영축(80)씨는 “비가 내린 지 30분도 안 돼 허벅지까지 물이 찼다”며 “그때는 통장도, 구청 직원도 보이지 않았고, 주민들끼리 서로 ‘대피하라’고 소리치며 겨우 위기 상황을 넘겼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주민 이모(60대·여)씨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날씨부터 확인하고, 빗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요동친다”며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성학 기자

“인재 명화” 신안동 주민들 대책위 발족

오는 22일 신안교회서 ‘설립 총회’

市 “차수판 일부 철거·추가 타공”

광주시와 북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신안동 주민들이 오는 8일 ‘수해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북구 신안동 주민 30여명은 4일 오후 신안교회에서 대책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전날에 이어 개최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중순께 내린 괴물 폭우와 전날부터 쏟아진 물폭탄에 의한 피해 모두 행정 당국이 키운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특

히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인한 재산 피해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크게는 수억원에 달하나, 지금 예정된 보상금만으론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 어려워 소용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의견이 오간 끝에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광주시와 북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지난 폭우로 주민 한 명이 사망한 만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대책위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원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발족을 위한 설립 총회는 오는 22일 신안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 신안교회를 찾은 광주시와 북구 관계자들은 연이은 폭우로 여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다.

또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중장기 계획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추가 타공과 용불천·서방천 관로 분리 등을 각각 발표했다.

이 외에도 광주시는 주민들이 강력히 요청한 홍수 방어벽(차수판) 일부를 철거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을 뵈 뵈어 없다”면서 “빈말이 아니라 과할 정도로 대책을 고민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담양서 빗길 추돌사고…8명 부상

빗길에 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8명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다.

4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

시2분께 담양군 담양읍 광주-대구 고속도로(광주 방면)에서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승용차가 멈춰선 사이 뒤따르던 승합차

가 이를 들이받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승용차와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 중 2명이 중상을, 나머지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빗길에 승용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고 당시 담양읍에는 시간당 69.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안재영 기자

“광주·전남 괴물폭우 태풍 ‘꼬마이’ 영향”

광주기상청 “수증기·건조공기 충돌”

지난 3일부터 광주·전남에 쏟아진 괴물폭우는 제8호 태풍 ‘꼬마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제3차 날씨 프리즘을 통해 “태풍 꼬마이에서 약화된 저기압의 수증기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수증기가 서해상에서 북쪽의 건조공기와 충돌해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어 “전남 서해안에는 국지 저기압이 발달해 무안 지역에 수증기가 집중됐는데, 지형 효과까지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필리핀 마닐라 북북서쪽 약 430km 해상에서 발생한 꼬마이는 같은 달 31일 중국 남부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 그러나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 저기압의 형태로 서해상에 접근을 계속했다. 이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에 다수의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됐다.

/안재영 기자

무안서 물길 내려던 60대 급류에 사망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물길을 만들던 60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4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께 무안군 현경면 한 하천 주변에서 A(60대)씨가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등 구조 당국은 오후 9시27분께 실종 신고 접수 위치로부터 약 800m 떨어진 하천에

서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병원에 즉각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자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굴삭기로 물길을 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과 전남도는 A씨의 사망 원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티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고블 G-07 프리미엄



피닉스 K-07



피닉스 G-01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소비가자력 ₩ 1,180,000



소비가자력 ₩ 1,380,000



소비가자력 ₩ 800,000